NH에셋키III

NH Asset 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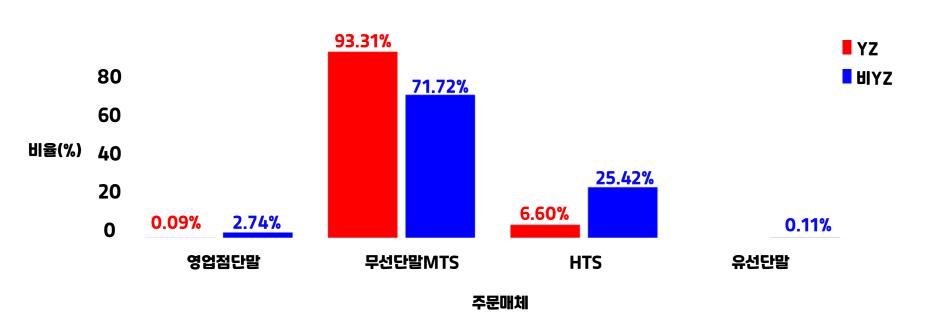
YZ세대여! 돈걱정은 **나중에해라** 변재용 이강빈

목차

- 1. YZ 세대 데이터 탐색
- 2. 모델링을 통한 YZ세대 특성 추출
- 3. YZ 세대의 특성 해석
- 4. 인사이트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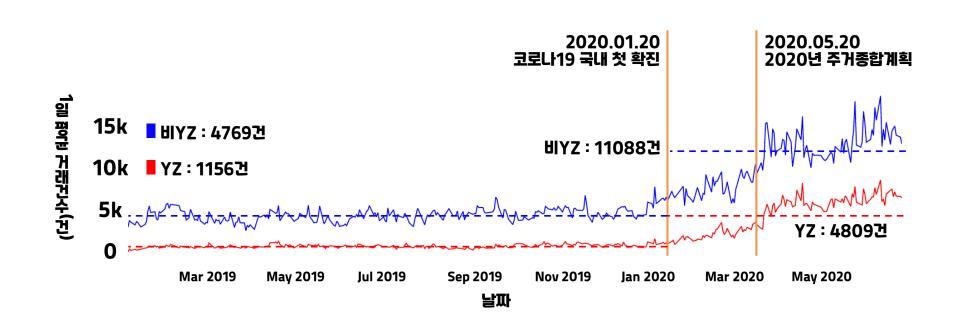
1. YZ 세대 데이터 탐색

YZ세대와 비YZ 세대 모두 무선단말MTS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음 특히, YZ세대는 **무선단말MTS**가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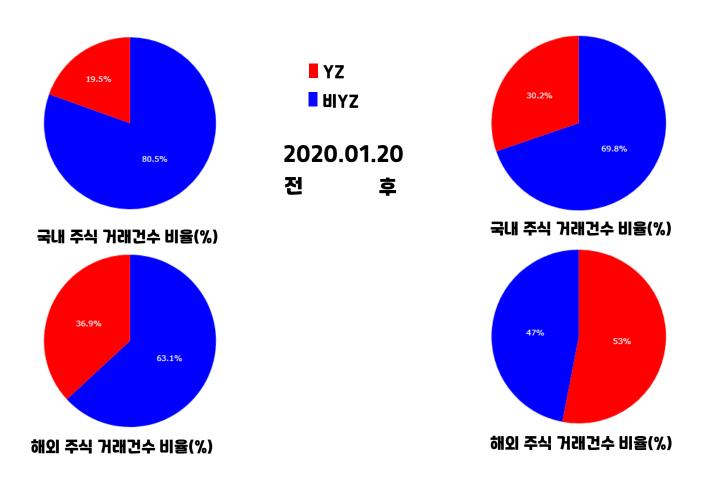
1. YZ 세대 데이터 탐색

2020.01.20 전후 1일 평균거래건수 상승률은 YZ세대(416%)가 비YZ세대(233%)보다 2배 가량 높음 두 세대 모두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이후 거래건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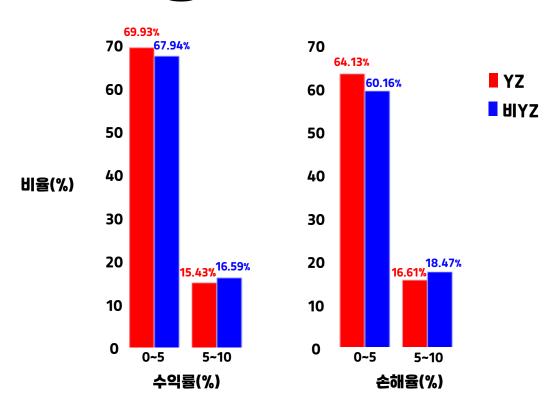


1. YZ 세대 데이터 탐색

국내,해외모두코로나19국내확진자발생이후 YZ 세대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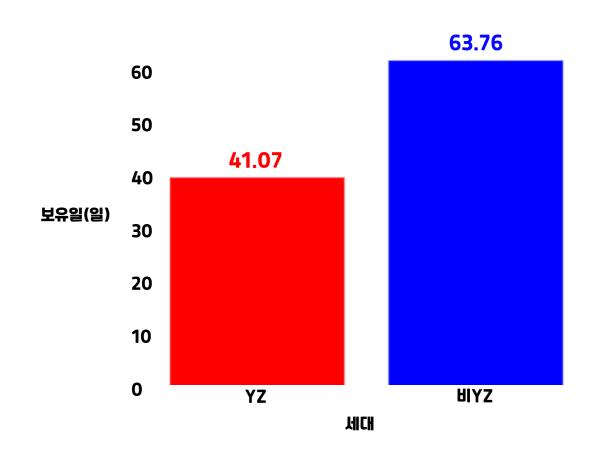


YZ세대가 비YZ세대 보다 0~5%손익률 구간에서 더 많이 매도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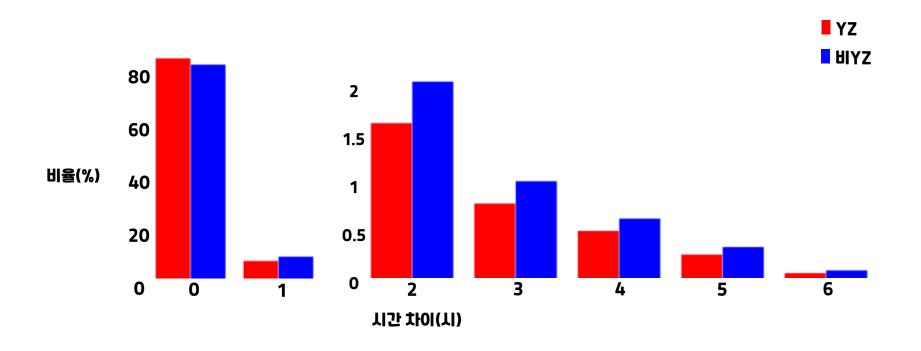


한 종목의 수익률이 0%인 경우 해당 종목 주식 보유일 평균을 구한 결과,

YZ세대가비YZ세대보다회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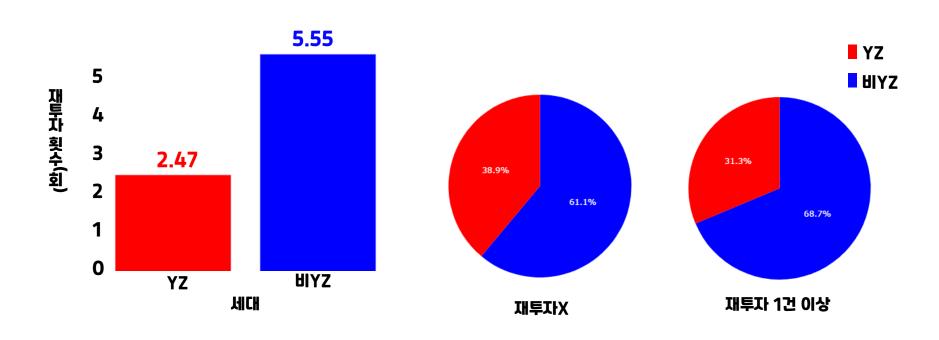


주문접수 시간과 최종 체결 시간처를 계산한 결과, YZ세대가 주문접수에서 최종 체결까지의 시간이 짧음 즉, 호가와 현재가의 차이가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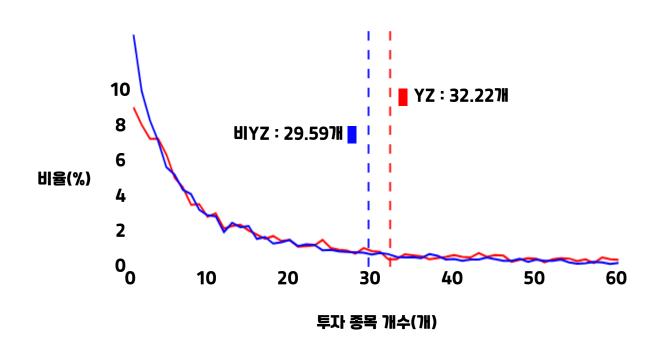
YZ세대는 비YZ세대에 비해

한번 투자했던 종목에 대한 재투자 횟수가 적음



*재투자 : 특정 종목의 매도 이후 일주일 이상의 텀을 두고 동일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로 7정

YZ세대는 비YZ세대보다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투자하는 종목의 개수는 더 많은 경향을 보임



YZ 세대 특성 정리

- 1. 가격 변동에 민감
- 2. 회전율이 높음
- 3. 호7)와 현재7인 차이가 적음
- 4. 동일 종목에 대한 재투자횟수가 적음
- 5. 더 다양한 종목에 투자

YZ 세대의 57KI 특성은 단기투자의 특성과 유시하므로,

YZ 세대는 비YZ세대에 비해

단기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단기투자를 많이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3. YZ 세대의 특성 해석

1. 환경적 요인

YZ세대는 무선단말MTS의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음

- 무선단말MTS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음
- 언제 어디서나 시세 확인이 가능해 단기투자로 이어짐
- · 모바일 앱 개선시 YZ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큼

3. YZ 세대의 특성 해석

2. 심리적 요인

YZ세대는 투자를 생존 필수 사항으로 여김

- · YZ세대의 투자목적
 - · 1순위 '주택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
 - · 2순위 '은퇴지산 축적'
- 낮은 임금과 집값 상승
 - 근로와 저축만으로는 '내 집 마련' 등 목적 달성 어려움
 - ㆍ 좌절감과 불안감 야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20년 7월 보고서

4. 인사이트 도출

1. NH에셋키퍼 형태

YZ세대 특성 발현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무선단말MTS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 ・ NH투자증권 QV, 나무 앱 내에 추가기능 형태로 구현
- · YZ세대의 5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개인의 거래내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현

4. 인사이트 도출

2. NH에셋키퍼 목적

YZ세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는 불안감, 초조감에서 기인함

공격적인 투자의 실패는 이런 불안함을 증폭시키고 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음

- ·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제시
- · 투자에 실패했을 때 대처방안 제시 필요

4. 인사이트 도출

3. NH에셋키퍼 기능

3-1 NH투자증권 채널 유튜브 영상 추천

- · 동일 종목 재투자율이 낮고, 다양한 종목에 투자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목분석 영상 추천
- 투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을 담은 영상을 추천하여
 투자실패로 생긴 두려움 극복에 도움

3-2 NH투자증권의 다른 금융상품 추천

· 수익률을 고려하여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을 추천하여 직접투자 외의 다른 선택지 제시

감사합니다